

감사의 글

저에게는 대학원 시절의 마지막 논문을 제출하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. 그 중 누구보다도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으며 사회에 나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던 대학 시절부터 저에게 올바른 연구자의 길을 가르쳐 주신 송 규동 교수님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.

대학원에서 건축환경 분야에 대해 많은 가르침을 주신 손 장열 교수님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안 병욱 교수님, 전 진용 교수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.

바쁜 직장생활에서도 저에게 도움을 준 기형이형, 논문 마무리를 함께 한 동철이형, 특히 같이 졸업하고자 많이 도움을 준 민성이형, 자료 정리시 번역을 도와준 승민이형, 대학시절부터 같이 동고동락하며 항상 후배인 저를 잘 도와준 종주형, 그리고 연구실 생활에 도움을 준 정호, 혜인이, 영주에게도 감사의 맘을 전합니다. 항상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신 서울 연구실의 인호형, 승민이 누나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적마다 잘 도와준 경우형와 관우형, 우람이, 우진이, 영태, 선효, 미정에게도 감사드립니다. 특히 논문 마무리에 많은 도움을 준 종명이, 그리고 대학원 생활동안 활력소가 되어준 통신동호회 널빤지의 회원여러분과 번역동호회 회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.

그러나 무엇보다도 저에게도 더 큰 도움을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.

집을 떠나 학교에서 생활하는 아들을 노심초사 기도해 주신 부모님과 토목공학을 공부하며 알찬 대학생활을 하는 동생 정훈이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이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하며 작은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.

1998년 12월

육 정 원